

지역 단신

'제1회 영랑 문학제' 29일 개최

우리나라 대표적 서정시인이자 민족 운동가인 영랑(永郎) 김윤식(金允植 1903~1950) 선생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강진군은 20일 "제1회 영랑 문학제가 오는 29일부터 3일간 강진 영랑생가와 군민회관 등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영랑선생의 3남 김현철(72·미국거주)씨의 '나의 아버지'라는 특별강연으로 시작되는 이번 문학제는 영랑 시문학상 시상, 시문학의 밤, 영랑 백일장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영랑의 시 세계를 조명하는 '영랑 시문학 심포지엄'과 관객들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포크송, 영랑시 낭송대회 등도 준비됐다.
이번 행사는 사단법인 영랑기념사업회와 계간 시와 시학사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시문학상 본상에는 시인 김남조씨가 선정됐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순창 고추장 獨 율드컵시장 공략

순창고추장이 율리시장 공략에 나섰다.
순창군은 오는 6월 율드컵이 열리는 독일 내 한국 식품 전문 업체인 한양유통과 4천만원 상당의 고추장 수출계약을 맺고 20일 밝혔다.
또 세제인들에게 순창고추장을 홍보하기 위해 독일 율드컵 기간 율리지역에 거대한 유통망이 있는 칼 슈타트바흐에서 고추장 제조 시연회 및 고추장오리 시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최근 임영호 부군수와 순창 고추장을 생산하고 있는 대상의 최정호 공장장이 포함된 시장계급단을 독일 현지에서 파견, 시장조사와 마케팅 협의를 벌였다.
/순창=이홍식기자 hslee@

구례 서시천변 유채꽃 만발... 봄나들이 갈까나



구례군 구례읍 서시천변에 최근 유채꽃이 만발해 마치 노란 시냇물이 굽어져 흐르는 듯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2만5천여평의 유채꽃밭이 펼쳐진 이곳 서시천은 수중부수대가 가득 돼 오색의 물을 뿜어내고 있고 징검다리까지 놓여 있어 봄 나들이객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나주 APC건립 본격화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선과·포장·배송 등 최신 시설 7월 법인 설립 창립총회...내년말 완공

운영주체 문제가 2년여 표류했던 나주시 광역거점 산지유통센터(APC)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나주시는 20일 "관내 14개 조합과 나주배농협과 최근 가장 나주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에 합의한 뒤 오는 7월 창립총회를 갖기로 함에 따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이 본격에 오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억원을 들여 나주배와 멜론 등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출 등을 위해 최첨단 자동화 선과기, 비포 포장기, 배송장, 예냉장고 등 최신

유통시설을 갖춘 사업이다.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함께 판매와 브랜드 관리, 정보화 사업 등을 맡는 공동법인도 구성된다.
나주시와 배농협을 포함 지역 전 농업, 배농법인 등이 참여하며 장기적으로 영양과 순천 등 배생산 타 지자체도 포함시킬 계획이어서 국내 배 관련 법인으로는 최대 규모다.
APC에서는 연간 2만t(15kg들이 130만 상자)의 배와 멜론 2천t, 토마토 등 과채류 3천t 등을 처리하며 2011년까지 취급액 1천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공동법인은 전문 경영인 참여와 농산물 유통순환기금 조성 등으로 낙후된 지역농업의 유통구조 변화에 새바람을 불려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2004년초 정부로부터 선정된 이 사업은 나주배농협이 APC 단독경영 등을 주장하며 참여를 거부, 2년여 표류했다.
더욱이 당시 배농협 고위 관계자는 정부 사업 자체를 유보시켜 줄 것을 주장하는 등 '조합 및 속행기'에 나서 빈축을 샀다.
나주시 관계자는 "나주배 명품화를 위한 대표적 사업중 하나인 APC건립이 조합의 합의를 이끌어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며 "이미 영산포 남부농협 내에 부지가 확보된 만큼 내년말이면 완공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전국 최대 시설원에 생산단지 조성

함평군, 日 업체와 양해각서... 엮다면 1만3,000여평

함평군에 외국자본이 투입돼 단일 시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원에 생산·수출단지가 조성된다.
20일 함평군에 따르면 이석형 함평군수와 돌 재팬(Dole Japan)사의 호리무치 타스오 대표이사가 지난 18일 일본 도쿄 돌 재팬 본사에서 함평군 엮다면 영흥리 일대에 시설원에 생산·수출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돌 재팬은 오는 7월까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협의를 거쳐 철골 비닐은실 구조의 시설

원에 생산·수출단지 1만3천800여평을 조성하게 된다. 또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수출농산물 생산능력 확대와 시설 확충을 위한 2단계 사업으로 대규모 단지를 추가로 조성해 파프리카, 화훼, 토마토 등을 생산,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권과 미주지역에 수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투자양해각서에서는 단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함평에 재투자하겠다고 약속해 지역경제 발전과 고용창출 등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보성군민의 상' 수상자

지역사회 발전 강대인사
군정 발전부문 김용환씨
체육 발전부문 임희춘씨



보성군은 올해 '보성군민의 상' 수상자로 지역사회 발전부문에 강대인(55·전남 친환경농업인 연합회장·사진 왼쪽)씨, 군정발전부문에 김용환(72·전 보성군 문화원장·사진 오른쪽)씨, 체육발전부문에 임희춘(52·보성군 체육회 상임부회장·사진 아래)씨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대인씨는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했고, 김용환씨는 44년간 공직생활을 하며 '다

항재'를 창시, 관광보성 이미지를 전국에 선양시킨 공로가 인정됐다.
또 임희춘씨는 '보성농차' 캠페인을 생산, 보성농차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군 체육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수상식은 오는 5월 6일 '제32회 보성다량제' 기념식장에서 보성공설운동장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보성=안영민기자 giahn@

목포해수청 강진사무소 개소

해양·수산 관련 대민업무 시작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강진해양수산사무소가 19일 최장현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황주홍 강진군수,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강진사무소는 5급 소장에 직원 5명이 근무하며 해양과 수산 관련 대민 업무를 다룬다.
강진사무소는 그동안 해남수산사무소 강진분실로 운영돼 왔다.
강진사무소는 분실로 사용하던 현 강진을 동성리 사무소 건물에 남아 내년에 새 사무소 건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Advertisement for '25년 고객사랑!' (25 Years Customer Love!) at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The ad features a decorative border and text promoting a 25th anniversary celebration with special menus and services. It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servations at (062) 525-2111.

A large real estate advertisement featuring multiple sections for various properties. It includes:
- '다우공인중개사' (Dau Real Estate Broker)
- '성공시대부동산' (Success Era Real Estate)
- '금보부동산컨설팅' (Keob Real Estate Consulting)
- '신창타워 분양 임대' (Shinchang Tower Sale/Rent)
- '맨해튼5번가 부동산센터' (Manhattan 5th Ave Real Estate Center)
- '금호공인중개사' (Keumho Real Estate Broker)
- '에셋코리아 부동산컨설팅·정기법률사무소' (Asset Korea Real Estate Consulting & Regular Law Office)
Each section lists property details, pric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gents.